

# 실명 유발 질환 증상 없어도 안저검사로 조기발견



### 건강 바로 알기 실명 막는 안저검사

#### 장재용

보리안과병원 원장

30대 후반의 김모씨는 얼마 전 안과에 갔다가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다른 질환처럼 통증이나 큰 불편함이 없었기에 김씨에게 녹내장 진단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눈 건강 관리에는 소홀한 편이다. 그러나 이미 증상이 있어서 안과를 찾았을 때는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해 시력을 되돌릴 수 없다. 눈 건강의 골든타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저검사에 대해 알아본다.

◇망막과 시신경 상태 파악=안과 검사에서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안저검사다. 안저검사(fundus examination)는 안저 카메라로 눈 안쪽을 촬영하는 간단한 검사이다. 시력의 핵심인 망막과 시신경의 상태를 안저검사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환자가 검사장비에 턱과 이마를 붙인 후, 렌즈 안에 깜박이는 점을 보고 있으면 동공을 통해 안저 부위를 촬영할 수 있다.

눈을 보면 까맣게 보이는 동공이 있고 그 공간을 통해 보면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가 보이고 주황색 빛깔로 보이는 망막과 그 주변으로 동그랗게

시력 핵심인 망막·시신경 촬영  
녹내장·황반변성 등 조기 발견  
당뇨망막병증, 3개월마다 관찰  
40대 이상 1년에 한번 검사 권고

보이는 시신경유두와 망막을 지나는 망막 혈관이 있고 중심부에는 황반이 보인다. 의사가 직접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안저 카메라로 사진만 찍기만 해도 보이나 다른 검사보다도 번거로움도 덜 하고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동공을 확대해서 보는 산동을 해야 더 잘 보이지만 요즘에는 산동을 하지 않고도 주변부까지 촬영하는 검사장비까지 나와 있어 산동으로 인한 불편함도 줄었으니 매우 검사 받기 수월해졌다.

◇증상 없어도 안저검사 통해 병 발견 가능=흔히 말하는 3대 실명 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도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 고혈압망막병증, 망막 혈관질환, 기타 시신경병증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안과 질환의 진단이 가능하다.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불리는 녹내장은 조기 자각증상이 없는 대표적 질환이다. 녹내장은 여러 원인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시력상실까지 이르는데, 시력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안저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없

도 병을 발견할 수 있다.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의 노화에 의해 시세포가 퇴화해 발생하는 질환인 황반변성도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다가 증상이 되면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고, 직선이 굽어져 보이며 눈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보이는데 이상태는 이미 세포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원래 시력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병변이 황반 중심(중심와)에 가까울수록 시력저하가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모르고 지내다가 증상이 있어서야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 조기에 병이 있는지 발견하는 데에 안저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당뇨망막병증은 혈관 이상이 황반부를 침범하게 되어 시력저하가 나타난다. 그러나 시력으로 증상의 정도를 알기 어려운데, 진행이 상당히 된 망막병증에서도 황반부의 침범이 없는 경우는 시력이 좋게 나오고, 병변이 황반부에 집중된 경우에 심한 시력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질환도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중기에 비문증, 광시증, 시야 흐림, 야간 시력저하, 독서장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가 문제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말기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찾아오고 당뇨 합병증으로 다른 장기에 비해서 병증이 가장 먼저 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는 약 복용과 동시에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진이 필요하며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면 6개월마다, 병의 진행이 된 경우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안저검사를 통해 경과



보리안과병원 장재용 원장이 40대 직장인을 상대로 안저검사를 하고 있다.

(보리안과병원 제공)

관찰을 해야 한다.

◇1년에 한번 정기검사=안저검사는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눈의 노화가 진행되는 4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검사받기를 권장한다. 초기에는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어서 안과 검진을 받아야 발견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고 이런 질환일수록 조기에 발견해 시력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디지털 영상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40대부터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상당수의 실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저검사를 통해 눈 건강을 지켜야겠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지적장애인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박중석 본부장)는 최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 기초검사, 구강검사, 반월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등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합 제공)

## 화순전남대병원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첫삽...2024년 완공

### 623억 투입... 첨단 의생명 연구 연구센터·바이오 벤처기업 협업

화순전남대병원이 바이오헬스케어와 미래의료 산업화의 길을 선도할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의 첫 삽을 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제4주차장 부지에서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개방형 의료혁신센터는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이며, 국비 151억원과 자부담 472억원 등 총 사업비 623억원이 투입돼 2024년 완공된다. 이 센터에는 다양한 연구센터와 관련 지원센터, 바이오벤처기업, 산업체 기관 등이 입주해 첨단 의생명 연구와 의료 산업화를 이끌게 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 센터를 산·학·연·병·관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건립은 의과대학 부지에 건립 중인 '국가 면역치료혁신센터'와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중심축을 이루며, 병원 중심의 국가 첨단의료복합단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조감도

지를 유지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의료복합단지에는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미래 의료산업 단지로 지역발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또 병원 본관동에 입주해 있는 각종 연구센터와 전남급원지원센터 등 공공의료사업기관들이 이 센터로 이전하면, 환자 급증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병원 내 진료공간과 병상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도 넓혀나간다. 센터 내 주차장을 건

립하고, 현 지하주차장의 증축 공사를 통해 차량 600대 가량의 주차공간을 새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은 "개방형 의료혁신센터는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인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구심점이 되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첨단 의생명 연구와 의료 산업화를 견인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병원,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 당진(신축)원룸매매

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

▶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사적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

##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전남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시외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